



## 제270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19년 11월 26일(화)~12월 18일(수)



제270회 본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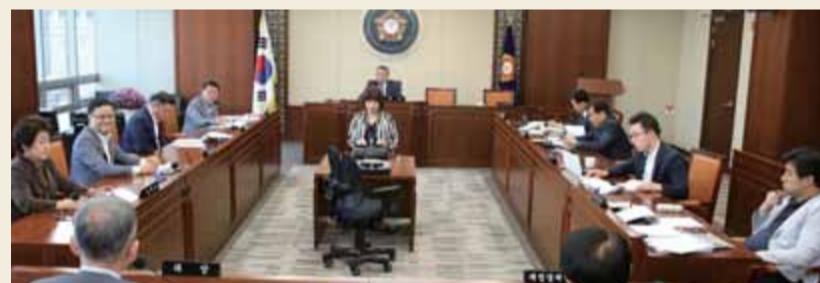
나순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은평구의회(의장 이연옥)는 2019년도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제270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23일간 일정으로 개최했다.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양기열 의원이 「쓰레기 거점수거 시범사업 확대 시행 요청」, 오덕수 의원이 「신사1동 지역에 공원 등 녹지공간 확충 요청」, 기노만 의원이 「공무원들의 대민서비스 질 향상 방안 강구」, 강용운 의원이 「은평구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다양한 출산장려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5분자유발언에 이어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청장의 시정연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1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순애, 부위원장 신봉규)를 구성하여, 2020년도 살림살이 규모인 8,390억원에 대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다.

나순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020년도 예산규모는 작년대비 960억원이 증가한 8,390억원으로 이 중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59.29%인 4,974억으로 복지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이 공무원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법정 필수경비에 충당되고 나면 주민 편의시설이나 도시기반 확충 등 기간사업비가 부족한 재정 불균형 상황에 놓여있지만 세심히 들여다보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보이고,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니 잘 분배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심도있게 심사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12월 13일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처리하였는데,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은영)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재무건설위원회(위원장 정남형)는 문규주의원의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은평 청년 새싹공간 민간위탁 재계약」 등 4건의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를 받았다.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에 이어 16일에 진행된 구정질문에 신봉규 의원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의 적절성 여부」 등 4건, 기노만 의원이 「환경센터 편성 예산의 적정성 및 운용 필요성」 등 4건, 정은영 의원이 「여성친화 도시 사업 추진 방향」 등 3건, 정준호 의원이 「재정 확대를 통한 공공사업, 공공 일자리 증대 방안」, 김진희 의원은 「임기제 공무원 채용 및 근무상황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고, 17일에는 나순애 의원이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대처 방안」 등 2건, 박세은 의원이 「은평복지재단 설립 건」, 박용근 의원이 「민간위탁 사업 전반의 문제점」 등 2건, 강용운 의원이 「유사 업무 처리부서 통합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 등 2건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 구청장과의 구정질문 및 답변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통과된 안건을 의결한 후 2019년도 은평구의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다.